서블릿이란 쉽게 말해 자바 코드를 HTML로 변환해 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바로 코딩한 소스를 서블릿 컨테이너(톰캣)에서 돌리기만 하면 HTML로 자동으로 변환되어 사용자 눈에 보여집니다.(※서블릿 컨테이너(톰캣)은 쉽게 번역기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예를들어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출력하는 HTML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HTML은 ‘정적소스’이기 때문에 1000줄을 타이핑 해야 하지만, 자바 for문을 사용하면 ‘outprintln(i)’를 써서 출력해 버리면 끝납니다.

물론 JavaScript를 가미하면 HTML도 ‘동적 소스’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HTML은 ‘정적 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블릿이 위대한 이유는 전 세계의 많은 지원을 받는 강력한 언어인 자바의 모듈(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바로 짜여진 전 세계 많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웹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블릿은 문법이 조금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된 것이 바로 jsp(java server page)입니다. Jsp는 귀찮은 서블릿 문법을 신경쓰지 않고 단지 HTML 소스 안에 ‘<%’, ‘%>’ 문자만 집어놓고 바로 자바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개발자가 jsp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서블릿 컨테이너(톰캣)이 서블릿으로 변환시켜 주고 , 다시 서블릿은 HTML로 변환됩니다.

Jsp -> 서블릿 -> html 3단계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서블릿 컨테이너는 훌륭한 번역기 라고 할 수 있습니다.